

# 전남도, 여수산단 '최악 위기' 현실화... 산업·고용 대응 '총력'

시장수요 감소·중국발 공급과잉 고용유지 '난항'... 공동대응 박차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신청



위기 맞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시장수요 감소와 중국발 과잉 공급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진 전남 경제의 버팀목 석유화학 산업을 살리기 위해 행정과 기업 노동계 전문가 그룹이 산업과 고용, 두 트랙으로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경제의 중심축 중 하나인 여수국가산업단 석유화학의 경우 시장수요 감소에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최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대기업의 신규 투자와 유·지보수 사업은 급격히 줄고, 일부 기업은 공장가동을 중단하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매출이 줄어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만 명 수준이던 플랜트 건설 노동자수는 올해 2000여 명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소비 감소와 지역상권 위축으로 까지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도는 올 상반기

를 위기 탈출 골든타임으로 보고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도의회와 고용노동청, 여수시와 산업계, 노동계, 지원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기대응 협의체를 전날 구성한 뒤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달 중 정부에 고용위기 지역지정을 신청하는 등 공동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고용위기 지정 신청 후 현지실사 때 기관별 역할, 대응 요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플랜트 근로자수 등 객관적 자료 등도 논의했고 고용위기를 극

복할 때까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남에서는 조선업 불황이 극에 달하던 지난 2018년, 영암과 목포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김준철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용위기지역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 대정부 건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고, 이광일 도의회 부의장과 주종섭 의원은 "중소플랜트 노동자들의 고용이 지속되도록 정부 지원 사업에 노동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구축도 급선무다. 도는 지난달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CCUS 클러스터 지정에 대한 정부 협조도 요청한 상태다.

김영록 지사는 "여수산단 적자가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10% 오르다 보니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업위기 선제대응 프로그램에 그런 부분도 포함됐으면 한다"고 산자부 장관에서 요청하기도 했다.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보고서도 이달 중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과 고용, 두 트랙 전략을 펴고 있으나 석 달 이상 이어진 탄핵 정국에 이어 6월 초 대선으로 당장 시급한 산업 재편 논의나 관련 입법 절차가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내각 지명, 청문회, 인수인계까지 최소한 수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상반기 중 급한 불을 끄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131@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대구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대구남구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의 동포가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고 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며, 이번 사업은 2026년까지 2년간 시행된다.

올해 모집 대상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등 세 가지 유형이다. /대구=김준환 기자 kih9@

### 목포시

#### 한강 시집 '필사 릴레이' 행사

목포어울림도서관은 5월 31일까지 도서관 필사실에서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첫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로 '필사 릴레이'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이용자들이 시 한 편씩을 릴레이 형식으로 손글씨로 써 내려가며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독서를 넘어 필사를 통해 문학의 깊이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필사 후에는 느낀 점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씹킹 메모' 코너도 함께 운영돼, 참여자 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완도군

#### '섬 숲 경관 복원사업' 추진

완도군은 '섬 숲 경관 복원사업' 일환으로 신지 신리지구에 13억원을 투입, 난대 상록활엽수를 식재한다.

'섬 숲 경관 복원 사업'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기후변화로 식생이 쇠퇴된 도서 해안 지역의 산림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을 원래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고 증진될 수 있도록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군은 올해 사업 대상지인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의 척박한 산림(13ha)에 우선 토양개량으로 생육 기반을 조성한 후 향토수종인 황칠, 동백, 완도호랑가시나무 등 난대 상록활엽수 9종, 1만 3000여 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 신안군 "염전근로자 인권 엄격보호" 광주시, 구직활동 청년 역량강화 지원

### 美 CBP, 韓 천일염 생산과정서 강제노동 의혹에 수입금지 조치 제도적 근절 추진, 행정지도 진행



7일 오전 전남 신안군 하늘에서 바라본 태평염전에서 천일염 생산을 위해 해수를 말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3일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남 신안군은 강제노동 의혹과 관련 입장을 내놨다.

이번 인도보류명령은 강제노동이나 인권침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차계약해 운영하던 운영자와 근로자의 간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사건이다.

신안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간과되지는 안된다고 자성하고 제도적으로 강력한 근절 계획을 수립 후 2021년 12월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염전 근로자를 비롯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군은 사건 발생 이후 제도제정, 합동 점검과 더불어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해 염전근로자의 정기적인 1:1면담과 현장 행정지도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신안군의 이런 자성의 노력으로 위계기 사건이후 현재까지 인권침해는 물론 임금체불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 최대 300만원 수당 지급

광주시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2025년 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참여자 830명을 10월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원자를 다음달 최종 선정 후 6월부터 구직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취업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로 설정과 구직계획에 도움이 되는 취·창업준비형, 역량강화형, 기업탐방형 등 새롭게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

램을 제공한다.

구직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사업 참여 중 취업을 하거나 창업에 성공하면 취·창업 성공수당을 50만원 지원한다.

구직활동비와 취·창업 성공수당을 포함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대상은 광주시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39세의 최종학력(가장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학력) 졸업(종퇴·제적·수료)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구직활동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이다.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원 신청자의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구직활동계획을 평가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 지난달 부산 취업자수, 전년비 0.7% 늘어

4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한 33만5000명이다. 이 중 자영업자는 1만4000명(-4.6%) 감소했다.

부산지역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부산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부산의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0.7%) 증가한 16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지난달 부산의 비임금 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4.4%) 감소

임금 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8000명(2.1%) 증가한 13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용근로자는 1만 5000명(36.8%), 상용근로자는 6만 6000명(7.2%) 각각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만4000명(-14.3%)나 감소했다. 또 지난달 일시휴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00명(-3.2%) 감소한 2만 5000명으로 나타났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울산시-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공장 신설

車 부품사 경쟁력 제고·일자리 창출

울산시가 현대자동차 울산 수소연료전지 공장 신설 투자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힘을 모은다.

울산시는 지난 9일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김두겸 시장과 이동석 대표이사, 문용문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연료전지 공장 신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공장 신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양해각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수소연료전지 공장 신설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 파견, 공장 건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기간 단축,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울산에 공장을 신설하는 데 적극 협조한다. 또 울산이 친환경차 생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모색한다.

특히 울산시와 현대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 공장 신설에 따른 자동차 부품사 등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경북도

#### 산불피해 동물 구조·치료 박차

'의성 산불'로 동물 피해가 속출하자 경북도와 경북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들이 나서 구조와 치료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와 수의사회는 지난달 30일부터 무료 이동동물병원을 긴급 가동해 산불피해 5개 지역(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에서 화상, 연기 흡입, 외상 등을 당한 소, 돼지, 닭, 염소, 개, 고양이 등 3552마리(228가구)를 치료하고 영양제 및 수액,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처방했다. /경북=김준환 기자